

학생·청소년 운동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04년 11월 20일(토), 오후 2시

주최: 학생·청소년운동 네트워크

장소: 민주노동당 대회의실

학생·청소년 운동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04년 11월 20일(토), 오후 2시
주최: 학생·청소년운동 네트워크
장소: 민주노동당 대회의실

학생·청소년운동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1부 : 학생청소년활동 사례 발표

발제 1: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활동 사례(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2-

발제 2: “새날” ---- 그 안에서... (새날 권예슬) -10-

발제 3: 학생 자치 활동 분과 사례보고(전교조 신은주) -12-

발제 4: 청소년 운동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역할(내일 김진덕) -28-

2부 : 학생청소년운동 네트워크 제안

발제 : 학생청소년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 (전교조 이문석) -31-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활동 사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1)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는 어떤 모임인가?

중·고등학교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학생회 간부들의 모임으로 학생회 간부들끼리 교류도 하고 학생회 활동에서 부딪치는 어려움도 나누고, 토론도 하는 등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모임이다.

(2) 회원 현황

- 운영진 : 7명 (5개교 학생회 간부로 구성)
선출 방식 : 회원들의 전체 선거에 의해 선출
활동 : 가자의 활동 방향, 운영, 전체 모임 진행까지를 맡아 하며 2주에 1회, 1주에 1회정도의 운영진 회의를 가진다.
- 회원 : 60명 (20개교 학생회 소속 학생회 간부로 구성)
전체 회원중 전체 모임에는 보통 20-30명의 회원이 참여하며 큰 행사(신입회원O.T, 학생의 날 행사)에는 대다수의 회원이 참여한다.

(3) 날짜별 활동 정리

- 2004. 2. 학생회센터 회원 모집
- 2004. 3. 임시 운영진 모집
- 2004. 3. 학생회 회원 전체 모임
- 2004. 4. 임시 운영진 모임
- 2004. 5.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정비 및 창단식 준비
- 2004. 6.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창단식(대표 및 운영진 선출) 및 전체 모임
- 2004. 7. 학생회 활력 프로젝트 참가/ 회원 모집 홍보 활동/
강의석군 지지와 학내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2004. 8. 가자 모임 [신입회원 O.T]
- 2004. 9. 가자 모임 [축제 간담회]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 참여,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들의 외침! "예배 선택권을 보장하라">라는 기자회견 개최 (교육부 앞)
- 2004. 10. 가자 모임 [축제 평가 및 학생의 날 준비 토론]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운동본부 참여,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 참여
2004. 11. 가자 모임 [학생의 날 평가 및 자유토론]
수능반대 페스티벌때 학생회 법제화 선전전

(4) 현재 해결 해야할 고민

- 운영진위주의 모임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한다.
(운영진이 아닌 일반회원들은 단순 참여만 해야하므로 적극성이 떨어진다.)
- 하나의 전체모임으로는 다양한 요구나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
(용의복장, 학칙 개정 활동등의 내용을 모임때 더 자세히 다루고 싶어하는 회원, 타 학교 회원과의 교류를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회원, 축제나 수능 응원등 학생회 현안을 더 다루고 싶어하는 회원들 등등.. 가자 회원들의 요구는 다양하다. 하지만 2주에 1번씩 이뤄지는 전체모임에서는 이런 다양한 요구를 다 담아내기가 어렵다.)
- 모임에 대한 소속감이나 친밀감이 낮다.
(회원 숫자도 많고, 언제든 회원가입이 가능하여 새로운 회원과 함께 모임을 하게 된 다거나, 꼭 회원이 아니어도 친구들을 모임에 데려 오는 등의 이유로 고정된 회원과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하게 되니 약간은 서먹하고 소속감과 친밀감이 다소 떨어진다. 자연히 모임에 대한 소속감이 낮아져서 모임에 출석 인원이 들쭉날쭉 하다.)

(5) 앞으로의 계획

- 2학기 가자 활동 평가 및 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하루 운영진 엠티
- 11월 말 가자 전체 모임
- 12월 연말 송년회
- 겨울방학 사업 (미정)

◎ 첨부1 -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회칙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라 한다.

제2조 (소속) 본회는 '(사)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부설 학생회 센터의 소속하는 모임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각 회원이 소속되어있는 학생회 자치활동의 발전과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회 자치활동의 발전을 위함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

- ① 본회의 가입은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언제든지 양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자격은 현재 학생회에 활동하고 있거나 혹은 학생회 활동의 경험이 있고 또한 본회의 목적의 찬성하고 그 목적에 따른 활동을 성실히 할 청소년으로 둔다.
- ③ 본회의 회원은 탈퇴한 후 다시 가입을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회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으로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 1.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2. 본회의 활동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
 - 3.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의결을 할 수 있는 권리
 - 4. 회칙 개정에 참여, 의결 할 수 있는 권리
 - 5. 본회 운영위원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6. 본회의 대표-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와 위원의 해임과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
 - 7. 각 소속 학교의 학생회 자치활동을 위하여 타 학교의 자료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7. (사)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의 활동에 대해 참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8. 본회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로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1.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할 의무
 - 2.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 3. 본회의 회비의 납부에 대한 의무
 - 4. 소속되어있는 각 학생회 소식과 자치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의무
- ③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회원은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총회)

① 본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1. 본회의 기본적인 활동 방향과 사업방향에 대한 기능
- 2. 대표-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 3.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감사의 기능
- 4. 재정에 관한 사항
- 5. 회칙 개정에 대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 의 참석과 참석회원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만 대표-운영위원에 대한 선출과 해임, 회칙의 개정에 대해서는 총회에 불참했던 회원이라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의결을 얻어 전체회원의 2분의 1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④ 본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두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청 또는 회원의 3분의 1의 요청 시 개최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년 2월 총회에 선거를 통해 구성을 하며 3월부터 활동을 시작으로 한다.

제8조: (지도교사) 본회는 (사)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를 지도교사로 둔다.

2장 운영위원회

제9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 2.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활동 추진
- 3. 재정 집행
- 4. 기타 운영위원회 활동에 관한사항

제10조: (위원)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 1. 남녀 공동대표 2명
- 2. 총무 1명
- 3. 각 부서 운영위원 1명

제11조: (부서)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 참여 활동부 : 본회의 회원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과 본회 차원의 사회참여를 기획한다.
- 2. 홍보부 : 본회의 대외 홍보를 전담한다.
- 3. 교육부 : 본회 신입회원의 교육(각종 본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한다.

- 4. 정보부 : 본 회의 가입한 각 학교 학생회의 활동 자료의 수집과 공유를 추진한다.
- 5. 인터넷부 : 본 회의 사이트 관리와 커뮤니티 관리를 전담한다.

제12조: (위원의 임무)

- ①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대표는 운영위원회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 2. 총무는 본 회의 사업, 기획, 재정, 회계, 기록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맡는다.
 - 3. 각 부서의 임원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3조: (위원의 선출 및 자격)

- ① 모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의 모든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자격
 - 1. 본 회의 활동을 성실히 한 자.
 - 2. 성실히 운영위원회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3. 대표성을 위하여 한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2명이상 참가 할 수 없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 ① 본 운영위원회는 2월 총회에 구성을 하고 3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 임기로 둔다.
- ② 위원의 해임이나 혹은 기타의 사유로 위원이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한다.
- ③ 위원의 임기 잔여기간이 2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임권)

- ①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총회를 열어 참석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건의로 위원의 해임을 건의하고 전체 회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목적에 대하여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 2.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가하는 경우.
 - 3. 기타 운영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3장 자문 위원

제16조: (임명) 총칙 4조 4항에 의해 회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해당회원의 의사를 개진하여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제17조: (자문위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일반 회원과 동일하나 운영위원회에는 임명될 수 없다.
-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하거나 혹은 자문위원 자신이 운영위원회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문을 줄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 (시행세칙) 본 회칙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후 전체회원의 동의를 구한다.

◎ 첨부1-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사업 계획서

1. 각 부 부서 계획

(1) 총무

- ① 앞으로 회비를 통해 모여지는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여 각 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 예정.
- ② 사이트 개편을 통해 회의 기록 게시판이 신설될 경우 모든 회원이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 기록을 게시판에 기록

(2) 사회 참여 활동부

- ① 청소년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해 각종 사회 행사 추진과 회원에게 사회 행사 홍보 활동 예정
- ② 8.15통일 행사

(3) 홍보부

- ①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대외 홍보 방법을 추진하여 '가자' 홍보 및 전국적인 회원 유치 예정

(4) 교육부

- ① 본 회의 신입 회원의 소개, 교육을 위한 O.T 모임 추진
- ② 회원의 체계화된 관리 예정

(5) 정보부

- ① 각 학교 학생회의 활동 자료를 수집 예정
- ② 활동 자료의 공유 추진
- ③ 학생회 자료 بانک 건립 추진

(6) 인터넷부

- ① 사이트 개편 후 회원들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위한 방법 기획
- ② 게시판 운영 수칙 제정 예정

2. 중, 장기적인 계획 및 목표

(1) 전국적인 모임을 위한 전국 지부 건립 추진 예정

- ① 현재 서울 회원보다는 아직 소수이지만 부산, 통영, 이천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곳

에 회원이 분포 중

- ② 먼저 중앙의 안정화 뒤 전국적인 모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부 건립 기획 중
- ③ 중앙과 지부간의 효과적인 분권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주최

(2) 학생회 법제화

- ① 실질적인 학생회 권익 증진을 위한 학생회 법제화 추진 예정
- ② 각종 캠페인, 국회 청원 등 다양한 방법 시도

(3) 학생회 자료뱅크 추진

- ① 학생회 간부들이 효과적으로 학생회 활동 자료를 사용·참고 할 수 있도록 학생회 자료뱅크 건립 추진
- ② 자료뱅크 위원회가 구성 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정보부와 연계하여 운영 및 추진 예정

(4) 계획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 ① 목표를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위원회 구성

◎ 첨부2 - [성명서]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에서는 강의석군의 뜻과 행동에 지지를 보낸다.

1. 지난 6월 17일 대광고 학생회장인 강의석군은 교내방송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요일예배를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초, 중, 고 예배 강요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강의석군에게 전학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학교에 남길 원했던 강의석군은 끝까지 학교의 전학요구를 거부하다 결국 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을 당하게 되었다.

2. 분명 헌법은 20조 1항을 통해 국민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광고의 사례 (강제적인 종교의식, 종교를 통한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등등)를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대광고의 교칙 역시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이 아닌 침해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법학계의 학리해석 역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칙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한다는 게 정설이다.) 그것뿐만 아니다. 징계사유로 내걸었던 8가지사유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제적처리까지 갈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이 들고 본래의 징계의 목적이 학교측이 내걸었던 8가지 사유로 인한것이 아니라 바른말을 하는 학생의 입을 막기 위한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분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권리로도 침해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기본권을 침해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고(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강의석군 역시 이러한 현실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강의석군은 모두가 그저 묵묵히 참고 넘어갔을 상황에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행동은 극찬 받아 마땅하다.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에서도 강의석군의 이렇게 용기 있는 뜻과 행동에 감사와 지지를 보내고 학교당국이 서둘러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4. 7. 21.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새늘” --- 그 안에서...

- 권예슬

안녕하세요! 저는 “새늘”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예슬입니다.

먼저 “새늘”은 새벽하늘의 줄임말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늘”의 2002년 여름 일부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시작은 고양시 학생 토론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차례의 공개 토론마당과 1차례의 학생회학교를 했습니다.

비록 제가 “새늘”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2회 공개토론마당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3이서 이번 해에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저와 같은 고3 수험생들 이외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2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늘’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 첫 걸음인 제1회 토론마당은 11.3 학생의 날에 맞추어서 ‘용의복장규정을 개선하자’는 주제로 2002년 11월 2일에 고양시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좀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토론마당은 ‘학생자치와 학생회 강화’라는 주제로 2003년 5월 31일에 열렸습니다. 이 토론 마당을 계기로 지금의 “새늘”의 모습((지금 “새늘”은 토론마당모임과 학생회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모임에서 각각 한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이 갖추어 졌습니다. 토론마당에서 학생회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다보니 좀더 다양한 학교의 학생회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필요성으로 느껴서 “새늘”에서 토론 마당모임과 다른 학생회 모임 하게 되는 멋진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제3회 토론마당은 ‘학습 인권 그리고 자율’이라는 주제로 2003년 11월 8일에 열렸습니다. 3회 토론마당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심각하게 당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다루었습니다. 0교시 조기등교,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모임을 가지면서 좀더 많은 고양시의 다른 학교의 학생회와 하고 싶다는 생각들과 학생회 스스로 학생회를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학생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제 1회 학생회 학교를 하였습니다. 이 모임 이후에 모이던 학교보다 좀더 많은 학교의 학생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제 4회 토론마당은 ‘대학 평준화’라는 주제로 2004년 11월 6일에 열렸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대학입시, 사교육, 공교육붕괴 등을 ‘대학평준화’라는 큰 틀에서 하나하나 다루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마당은 학교 내의 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좀더 시야

를 넓혀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것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늘”은 지금까지 정말 것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사들이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뒤에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매번 토론마당을 할 때마다 몇 번씩의 비공개 토론회를 하고 학생들은 리플렛을 만들고 포스터를 제작하고 자료집에 넣을 글들을 쓰고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시면서 학생들의 실수를 지적해 주시고 학생들보다 더욱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십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2002년부터 커다란 공백기간 없이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늘”이라는 모임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교과서로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새늘” 토론마당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의견을 얘기하고 공감하고, 또 서로 보완해 주면서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은 기대와 열정으로 참여했었지만 토론회를 하고 나서도 바뀐 것이 없는 현실에 많이 좌절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이 현실을 바꾸는 일에 첫 걸음이란 사실도 알았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무엇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확인하는 것 아마도 이것이 “새늘” 모임의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끔 대중매체에서는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주체가 되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학생 주체가 되어질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학생이 교육에 주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이 무엇인가 하려 할 때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학생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늘” 활동을 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인권의 이야기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학생의 권리를 찾아가면서 제가 교육의 주체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많은 지역에서 “새늘”처럼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요, 좀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학생 자치 활동 분과 사례보고 (북부 학생자치활동연구회) -신은주

학생 자치분과에서는 학생회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학교로 시작했으나 주요 사업인 연합수련회를 통해 보다 많은 학교의 참여와 학생회 지도교사를 확보하여 10개 학교의 94명의 학생회 임원들이 참가하는 연합수련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북부지역의 학생회 지도교사 대상으로 학생 자치 활동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인권 강좌도 개최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학생회장단 모임에서 학생의 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별로 학생의 날 기념 행사를 만들어내는 등 작년 활동보다 보다 나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연합수련회는 성공리에 끝났으나 지속적인 학생회 회장단 모임을 통한 임원 교육과 학생회 지도교사간의 교류 및 연수는 자치분과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올 한 해 인권강좌를 통해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실천을 해보자는 결의 하에 도봉중학교는 학생회칙 개정과 용의 복장 규정 개정을 하였고 노원중학교에서도 학생회를 존중하는 학생회칙 개정안을 상정해놓고 있으며 노일중은 이미 학생회칙을 개정해 놓았다. 그러나 자치분과 회원들이 그때 그때 당연한 학생회 활동을 위한 정보 교환만으로도 벅차서 그 외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 한 것이 다소 아쉽지만 작년부터 더 많은 선생님들의 동참과 많은 학교의 학생회 임원들 교육으로 북부 지역의 중학교 학생회 활동의 대중화에는 성공한 것만은 틀림없다.

내년에는 모범 사례를 남긴 학교를 학생 회장단 모임과 연합 수련회에서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사(연합수련회, 학생의 날 기념 행사, 학생 회장 선거)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를 필요가 있다. 또한 올 해 놓쳤던 학생 인권 및 복지 신장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성과를 남겨야 할 것 같다.

1. 연구회 활동 참가학교 : 상경, 도봉, 공릉, 창북, 노일, 월계, 중평, 한천, 상계제일, 정의여중, 도봉정산고 등 10개교

2. 중점사항 : 학생회 활동 사례발표 (참실보고 대회)

- 학생회 지도교사 연수
- 학생 복지 시설 조사
- 연합 수련회를 통한 학생회 임원 연수
- 학생 회장단 모임을 통한 회장단 교육

4월: 인권 교육 강좌 실시
(1강:인권아, 놀자 / 2강: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 3강: 인권교육 이렇게 한다 / 4강: 학생 인권과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활동 연간 계획 수립
간부 수련회

5월: 스승의 날 행사

학생회장단 모임(22일-노원청소년 수련관)
(상경, 도봉, 공릉, 창북, 노일, 월계, 중평중, 한천중, 북서울, 상계제일중 참가)
학생회 지도교사 연수 (19일 장소: 도봉중학교)
연합 수련회 홍보 / 인권 명제집 작성

6월: 학생 복지 현황 설문 조사

연합수련회 준비(참가 학교 신청 받기)
학생회장단 모임(19일-노원청소년 수련관)

8월: 21일, 22일 (1박2일) 서울학생수련원 '대성의 집'

(도봉, 노원, 중평, 공릉, 인수, 한천, 월계, 창북, 정의여중, 노일중 등 10개교 94명 참가)

9월: 간부수련회 / 2학기 사업

학교별 축제 준비

10월: 축제

학생 회장단 모임(9일) - 학생의 날 행사 교육(노원청소년 수련관)
(도봉정산고, 창북, 중평, 도봉, 상계제일, 공릉중학교 참가)

11월: 학생의 날 기념행사

지회 참실발표회 및 학생회 지도교사 연수 (19일 장소: 상경중학교)
- 사례발표 (연합수련회, 간부수련회, 학생의 날 기념행사)
- 학생회칙 모범 예시안, 학생 복지 실태 비교

2004년 학생회 임원 연합 수련회

1. 들어가며

우리 북부 지회에서는 올해에도 역시 학생회 임원 연합 수련회를 다녀왔다. 비록 한 학교의 간부 수련회 정도의 규모이긴 하나 작년의 5개 학교의 50여명에 비해 올해는 10개 학교에 99명 (최종 94명 참가)이나 참가하는 행사로 대규모의 행사였다. 방학 중 연수를 하지 않으면 2학기 들어 학생회 활동이 부진해지기 마련이어서 방학 중 연수가 필요하지만 학생회 임원 교육시키는 것이 학생회 지도 교사 혼자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작년 다녀온 선생님들의 호응도 좋아 올해에도 추진하게 되었다.

수련회 다녀온 후 학생회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담당생들의 행복한 비명을 들을 수 있었고, 소수만 참가한 학교는 참가했던 학생들만 적극적이어서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과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긴다 하니 수련회의 성과가 증명 되었고 2학기 활동이나 활발한 학생회 활동을 위하여 연합 수련회에 가능한 많은 임원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2학기 중점 사업인 축제와 간부 수련회에서 많은 학생회 학생들이 연합수련회를 응용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고 연합 수련회에서 만나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나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니 학생회 활동은 학생 자치 문화의 중심인 것만은 확실하다.

수련회 이전 두 번의 학생회장단 모임을 가졌고 이때 연합수련회 홍보를 하면서 참가는 선착순이라는 말을 하였더니 의욕적인 학생회장들이 학생회 임원에게 가자고 적극 독려하여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두 번째 학생회장단 모임에서는 프로그램을 의논하고 역할분담을 하였고 학생들이 진행해보기로 결의하였다. 작년에 교장선생님들이 전교조라는 이유로 참가를 허락하지 않거나 참가를 묵인하여서 올해는 북부 교육청 학생 자치 활동 연구 분과로 등록하여 북부지역 각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 덕에 대부분의 학교가 교장선생님들의 손쉬운 협조를 얻어 공식 출장을 달고 부담 없이 참가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2. 연합수련회 프로그램 소개

1) 일정표

제 1일 (8. 21)		제 2일 (8. 22)		
	07:00	기상 및 아침 산책		
	08:00	아침 식사 / 짐 정리		
	09:00	분임토의 결과 발표(진행: 공릉중)		
성북역 광장 집합 (10:40발 기차 → 11:23 도착)	10:00	동영상을 통한 학생회 활동	우리가 만드는 학교 축제	학생회 파워 프로젝트
	11:00			
학교별 일정 진행	12:00			
	13:00	점심식사 및 정리		
	14:00			
대성의 집 도착 / 입소식 및 안내(진행: 중평중)	15:00	조별 활동 정리 및 발표 나의다짐 편지쓰기 및 퇴소식(진행:월계중)		

제 1일 (8. 21)		제 2일 (8. 22)	
난장뜨기 놀이	16:00	출발(15:59) → 서울 도착(16:37)	
학생회 활동 사례 학교별 발표 (진행: 창북중)	17:00		
	18:00		
저녁 식사 / 휴식	19:00		
<분임토의> 학생회 활동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분임별 자체 진행)	20:00		
	21:00		
<친교의 밤> 학교별 장기자랑 (진행:노원중) 대동놀이/ 모닥불놀이	22:00		
	23:00		
학교별 정리 모임 /취침	24:00		

2) 학교별 학생회 활동 사례 발표

학교	내용	형식
도봉중	스승의 날	재연, 사진 게시
노원중	대의원회	재연, 손극 형식
월계중	총괄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공릉중	학교 운영위원 참관기, 급식 모니터링	뉴스형식 발표
한천중	한천지킴이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창북중	캠페인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인수중	무제	발표

노일중	구기대회	재연, 촌극
중평중	스승의 날	프레젠테이션

사례발표는 작년에 이어 꼭 고수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올 해에도 학생들에게 형식을 자유롭게 하여 학생회장단 사전 모임에서 여러 가지 소재로 안배를 하여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학생회장단들이 머리를 짜내 프레젠테이션, 촌극, 뉴스 형식을 동원한 특색 있는 사례발표를 대부분 하여 참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각 학교 학생 임원들은 다른 학교의 모범 사례를 눈여겨보고 내년엔 자기 학교에서 실천해보려는 듯 메모하는 학생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올 해 처음 참석하는 몇 학교는 의욕이 너무 넘쳐 한 주제가 아니라 학생회 활동 전반에 대해 장황하게 발표하여 시간을 많이 잡아서 조금 지루하였다. 연합 수련회 사전 모임에서 시범으로 특색 있는 사례발표를 보여주고 응용을 할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회 활동이 활발한 몇 학교를 선정해 주제별로 내용이 있고 형식이 다양한 사례발표를 준비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어쨌든 조금 지루하기는 했지만 행사를 파워 포인트와 빔 프로젝트로 요목조목 보여준 것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노원중학교는 대의원회의의 애로사항을 폰트 형식으로 재치 있게 보여 주었는데, 방송 상태가 여의치 않아 안타까웠지만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기뻐다. 도봉중학교의 스승의 날 행사 게시는 다채로웠고 선생님들에게 대접할 차 주문 받는 장면을 실제로 재연하였는데, 조금 산만하였지만 정성이 깃든 메뉴판을 많은 친구들이 볼 수 있었다. 한천중학교에서의 한천지킴이 영상은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내용을 영상극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어서 학생들의 정성과 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평중의 선생님을 태울 꽃마차 사진이 나왔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타주신 선생님이 스승의 날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봉사하심을 보여주셔서 사제동행의 아기자기한 행사였을 보여 주었다. 창북중학교의 "교장 쌤이 울고 있다."는 캠페인 피켓을 본 순간 폭소와 교장쌤을 걱정하는 학생회임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었고 학교가 교장 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로 전진하는 일에 학생회가 주춧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였다. 공릉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창관기를 발표할 때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에 한 발 더 눈을 떴고 월계중의 성실하고 꼼꼼한 학생회 활동은 지도교사의 모범적이고 성실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3) 학교별 장기 자랑

저녁 분임 토의 후 참가자들의 화합을 위한 친교의 방 행사로 학교별 학생회 장기 자

랑을 개최하였다. 사전에 꾸민 상품을 내걸고 준비를 당부한 장기 자랑은 그 준비 과정에서 학생회 임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어 좋았다. 장기 자랑은 인기 가요에 맞춰 춤추는 형식을 지양하고 좀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것을 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모든 학교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장기 자랑 준비를 해왔는데 교직 생활하면서 그렇게 다양하고 성의 있는 학생들 장기 자랑은 처음 봤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1등은 음악을 편집하여 열심히 준비한 공릉중학교가 차지하였고 우승을 놓친 한천중학교 학생회장은 매우 속상해 했다고 한다. 인수중학교의 새물율동은 인기를 얻어 수련회 후 복서 율동, 한천중, 정의여중 학생이 배워 축제 때 학생회 임원들이 무대에서 직접 춤을 춰 학우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기 자랑을 준비하면서 학생회 임원들끼리 친해질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보며 매우 즐거워하였다.

학교	제목	형식
도봉중	사물놀이	난타, 사물놀이
노원중	노원에 무슨 일이?	폰트 (노원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월계중	엽기 패션쇼	여장 남자
공릉중	퓨전난타	난타
한천중	노래 한마당	노가바, 돌아가면서 한명씩 열창
창북중	코믹댄스	복고풍 소방차 춤 재연
인수중	새물춤	단체 율동
노일중	가요제	노래
중평중	부라보학생회	촌극
정의여중	워십댄스	단체율동

4) 분임토의

설문 조사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분임 토의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섞여 8개 조로 나뉘어 언제나 그러 하듯이 열띠게 토의를 하였다. 학생들은 이 때 다른 학교 학생들과 접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아하였고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듣고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어 많은 학생들이 힘을 얻어 갔다. 분임토의의 주제와 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생회 활동이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회 임원들끼리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활동에 무관심하거나 불참하는 임원이 있어 마음이 언짢을 때가 많죠. 학생회 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부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학생회장 선거후 임원을 선출하여 수련회를 가져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자기의 직책에 대해 교육을 받고 책임감을 갖게 한다.
- 학생회 임원들끼리 단합 대회를 자주 갖는다.
- 주기적으로 학생 회의실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학생회 회의 중에 회의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여 회의에 모두 참여 시키도록 한다.
-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별도로 학생회 임원을 뽑아 활동을 열심히 할만한 사람을 뽑는다.
- 임원들끼리 생일을 챙겨 주고 조별 게임을 배워 보급한다.
- 학생회 활동에 봉사활동 시간을 적용한다.
- 회의할 때 소극적인 아이들도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학생회를 CA반으로 묶어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 마니또를 한다.

2. 학우들에게 사랑받는 학생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우들은 우리들에게 무관심해요. 학우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학생회 활동을 제안해 봅시다. 그야말로 톡톡 튀는, 살아 숨쉬는 기발한 사업 말입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토요일 날은 사복 착용/CA전일제)을 수렴하여 관찰시킨다.
- 소수의 조그만 의견도 존중한다.
- 중요한 안건은 전교생이 찬성, 반대 투표할 수 있게 한다.
- 각 층마다 건의함을 설치한다.
- 행사가 끝난 후 설문 조사를 하여 이번 행사의 장단점, 고쳐할 점을 들은 후에 내년 행사를 대비한다.
- 일반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창구를 마련한다. (카페, 휴피)
- 학생들이 건의하는 모습을 캠코더로 찍어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영한다

***** 전교생이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다.**

- 전교 구기 대회(체육대회) / 반 대항 김밥말기, 보물찾기, 기네스 대회를 한다.
- 다같이 마음 모아 '기마전' / '노래방' 차 학년 별로 팀을 짜 구기대회를 한다.
- 책을 선정하여 그 책에 관한 골든벨을 한다.
- 동아리 발표회, 축제를 주관한다.
- 전교생 생일 챙겨주기(편지, 축하 인사, 방송)
- 행사 준비를 할 때 일반 학생들도 참여 시킨다.

***** 학생회 활동을 홍보한다.**

-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계획이나 활동을 알려주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홍보를 한다.
- 학급 회의를 활성화 하여 학급활동,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다.
- 학생회 활동을 녹화해서 영상 제작 후 전교생에게 틀어준다.
- 학생의 날에 행사를 하거나 캠페인을 한다.
- 학생회를 홍보 할 수 있는 이름, 버튼, 조끼 등을 제작한다.
- 학생회 마스코트나 이름을 공모 하여 시상한다.
- 교실을 돌아다니며 짧게 소개도 하고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도 받는다.

3. 학생회를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 함께 해주어 힘이 된답니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과 관련하여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진지하고 관심 있는 눈으로 신경 써 주세요.
- 선생들의 의견으로 학교행사를 결정하지 말고 학생에 의한 결정을 해주세요.
- 학생들이 건의해서 어려운 의견들은 선생님들이 함께 맞서 주셨으면 한다.
-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 처리부를 만들어주세요
- 학생회 예산을 늘려주세요
- 선생님들께서 가능한 학생회 사업에 많이 찬성해 주시고 지지해주세요.
- 선생님께서 먼저 학생회를 믿어 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한다.
- 선생님께서 도와 주셔서 감사한다. 이렇게 서로 도왔으면 한다.

- 선생님들의 입장만 생각하지마세요. 학교의 전통을 바꿀 필요가 있다
- 규정에 맞게 지도해 주시고 자의적으로 해석 하지 말아주세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학생회 담당선생님 외에도 다른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선생님들께서 학교 행사에 별로 참여하시지 않는다.
- 학생회가 활동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러 준다.
- 간담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 예산을 공개하고 대의원회의 때 빵, 우유 값을 아껴서 다른 행사에 써주세요.

5) 대동 놀이 / 모닥불 놀이 (고구마 구워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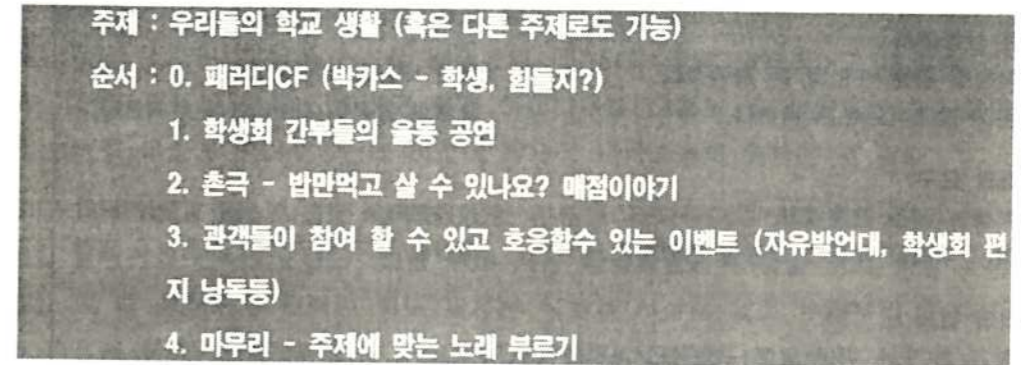
대동 놀이는 놀이 본과의 박재간 샘의 도움을 얻어 남녀 짝을 지워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에 맞춰 짝춤을 추었는데 처음에 썩TM러워 하는 녀석들이 나중에는 흥겹게 춤을 추어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었다. 선생님들이 나이를 핑계로 참가를 안 하셨는데 선생님들도 함께 했으면 더욱 좋았을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대동 놀이로서 사전에 학생회 활동의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전지에 적어 구조물을 만들어 공으로 부스는 놀이로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아이들은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신나게 던졌다. 그 구조물이 다 부서졌을 때는 함께 함성을 질렀는데 연합 수련회 이후로 그 장애는 많이 극복되었으리라 본다. 장애의 요인 중에 "돈"이라는 글씨가 제법 크게 써 있어서 처음엔 웃었는데 아마도 학생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이 좌절된 경험 때문이었으리라. 대동놀이의 열기를 모닥불 놀이로 이어 가려고 했으나 시간이 늦어 모닥불 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대신 어두운 곳에서 친절하게 박원준생, 박상준생의 수고로 고구마를 구워 먹었고, 야경을 감상한 후 공식적인 하루 일정을 마감 하였다.

6) 선택특강

선택 특강은 희망 21에서 맡아 주었는데 (1) 학교 축제가 가요제나 놀이마당과 CA 발표회에 머무르지 않고 축제의 주제를 설정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애환이 녹아있는 학생회 코너를 만들자는 축제, (2) 영상세대를 겨냥하여 영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학생회 활동, (3) 학생회 활동이 학교에서 부딪히는 난관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얘기해보는 학생회 파워 프로젝트 등 세 강좌를 마련하였다. 선택 특강 이후 강좌별로 발표를 시켰는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선택 특강 시간에 제작한 동영상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은 콘티를 짜고 직접 찍었는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와 명대사 명배우들이 나와 학생회 화이팅을 외쳤다. 축제팅은 "새물"이라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보여 주었고 기존의 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회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

고 준비하는 그들의 잔치에 초점을 맞췄다.

축제 주제 예시)



학생회 파워 프로젝트는 분임토의와 조금 내용이 겹쳐서 호응도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건의사항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골몰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좌절된 친구들은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정보를 교환하고 각 학교의 학생회 선생님의 조언을 경청하였다.

“우리는 자치 활동의 주인이다”를 여러 번 외치고 학교생활을 합시다!

설문 조사 결과

1. 좋았던 프로그램과 그 이유(있는데로)	분임토의(24) 조별강의(21) 레크리에이션(17) 장기자랑(17) 모두 다 (10) 보트타기(8) 자유시간(8) 없다(2) 사례발표대회(2)
2. 내용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과 그 이유	학생회과외프로젝트(9) 분임토의(8) 사례발표대회(7) 레크리에이션(9) 없다(39)
3. 수련회 전체 소감 및 평가	자유로워서 좋았고 시간에 조금 쫓겼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나 정보 교환한 것이 좋았고 많이 배워간다.
4. 건의사항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불편, 시간을 더 늘렸으면... 캠파이어를 더 멋있게 했으면...
5. 별점평가(10개중)	각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 색칠해 주세요.
식사	☆☆☆☆☆☆☆☆ (8)
숙소	☆☆☆☆☆☆☆☆ (9)
조별 강의	☆☆☆☆☆☆☆☆ (8)
학생 진행	☆☆☆☆☆☆☆☆ (9)
사례 발표 대회	☆☆☆☆☆☆☆☆ (8)
장기자랑	☆☆☆☆☆☆☆☆ (9)
분임토의	☆☆☆☆☆☆☆☆ (8)
레크리에이션(놀이)	☆☆☆☆☆☆☆☆ (8)
학교별 시간	☆☆☆☆☆☆☆☆ (9)

연합수련회 마치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약속, 나는 이런 학생회 간부가 되겠습니다.

Dear : 희경

앞으로 너무너무 바빠질 것 같아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1학기를 겨우겨우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2학기를 내다보니 앞날이 착잡합니다. 2학기때에... 파워가 넘쳐 주체 할수 없는 학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늘 뛰어다니고, 늘 바쁘면서도 또 내가 더 할일이 없나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는 학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앞날을 걱정하는 나약한 학생회장이라 하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앞날을 바라보며 찬양 할 수 있는 학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지만, 내가 바라고, 학생회가 바라고,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가 바라는 일을 기대를 저 버릴순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밀어붙이고, 강력하게 실천하는 강하고, 용감하고, 후회없이, 파워가 넘치며, 여유로운 학생회장, 학교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나의 약속, 나는 이런 학생회 간부가 되겠습니다.

Dear : 변화된 나영

정말 느낀 점이 많다. 학생회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얼마나 했었는지...
또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 짓긴 했었는지...
그 동안 학교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는 약속만 해 놓고 나는 내 할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다. 준비성도 떨어져서 다른 학교에 창피도 당했다.
하지만 그렇게 창피 당한 만큼 나 뿐만 아니라 한천 학생회 친구들이 반성하고, 다음 일을 하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갈 날의 아주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인생에서 선택할 때 필요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준 것 같다.
열심히 하는 다른 학교 학생, 어디서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멋있는 점을 본받아 나도 사회 생활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나영이 당찬 나영이가 되도록 해야겠다. FROM : 변해야 할 나영



<참가 학생 소감문>

학생회 연합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찬영(한천중학교 한천지킴이 부장)

2004년 8월 21일. 기대하던 날이 드디어 왔다. 난 이 수련회를 가기 전에 마음 속 깊이 다짐했다. '많은걸 배워서 한천의 학생회를 좀더 발전시켜야지. 배운 걸 이용해서 친구들과 후배들을 위해 써야지.'라고 말이다. 이번에도 다짐만 하는 건 아닌가 싶지만,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중대한 다짐이기에 수련회 내내 잊지 않으려 애썼다.

북한강변에서 물놀이를 즐긴 우리는 대성의 집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서로의 벽을 허무는 즐거운 난장뜨기가 있고 난 후, 학생회활동 사례 발표시간을 맞이했다. 각 학교의 특색 사례들이 가지가지 드러나고, 우리 학교의 특색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사뭇 진지해졌다. 이런 학교에선 이랬고, 저런 학교에선 저랬구나. 서로의 기발한 활동에 우리는 혀를 내두르고 감탄했다. 드디어 우리 학교 차례였다. 날 믿어준 친구 녀석 덕분에 발표는 내가 맡게 되었다. 난 내 혼신을 다해 우리 학교의 활동을 발표했다. '한천지킴이'. 듣도 보도 못한 특이한 사례. '기죽을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드는 학교의 자랑이며 역사이며 전통이잖아'라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말실수와 '지킴씨'라는 별명을 얻은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저녁밥도 맛나게 먹고, 또 한번의 진지모드로 들어갈 시간이 왔다. 바로 분임토의 시간이다. '학생회 활동 홍보' 주제에 대해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배지나 조끼 등이나 독특한 마스코트를 만들자는 의견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학교 축제' 주제에서 나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이게 학생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각 시간을 늦추자', '단축 수업을 하자', '노래방차를 끌고 오자'는 등... 예산 부족에 학생회가 그다지 큰 권한을 갖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거니와, 축제의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외 주제에는 대부분 좋은 의견이 나와 토의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좋은 의견을 많이 들고 왔는데 다행이다.

둘째날, 우리는 3그룹으로 나누어 파워프로젝트팀과 축제팀, 그리고 영상팀으로 나누었다. 나는 평소에 관심있던 영상팀으로 들어가 학생회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구상부터 촬영, 재검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하였다. 우리는 Y사의 상표 '거기'를 패러디한 CF를 찍었고, 다른 조들의 작품도 '파리의 연인'부터 정수기 CF까지, 색깔있고 재밌는 아이디어로 가득찼다. 학교에 가면 이런 아이디어들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강렬하게 꽃혔다.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는 그곳에서 배운 많은 것들을 이용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 축제 때에도 배운 춤을 써먹기도 하고, 우리 손으로 추억을 담은 영상물도 제작하고, 여하튼 많은 발전이 있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련회 한번으로 우리 학생회의 레벨이 오를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일종의 커다란 '경험치'를 얻었다고. 좀 더 나은 레벨로 도약하기 위한 경험치 말이다. 또 내

가 여기서 얻은 경험이 단지 우리학교 '한천'에 머무르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청소년 운동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역할

-김진덕

수능을 마치고 기능을 멈춰버린 학교!

수능이 끝났다. 수능을 마친 고3 학교는 기능을 멈췄고 더 이상의 역할이 없다.

우리가 입시위주의 학교, 붕괴되는 교실, 죽어가는 공교육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수능을 마친 고3교실일 것이다. 과연 학교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본다.

학교는 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학원처럼 변해가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실업교육이 설자리는 더더욱 없어진다)

“한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아홉 사람을 죽일수 있다”라는 철학을 가진 모 학교장의 말은 명문대 입학자의 숫자로 학교의 등급을 매기는 세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다.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학교교육과 비민주적 학사운영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의 발전과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 자아실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다.

학생들에게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참여의 권리가 없음으로 인해 학생은 비민주적 학교구조 속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사자는 학생인데 NEIS의 실행여부에 대해 학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학교운영과 학교교육의 방식은 민주적인 과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일방통행식으로 민주적의식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에서 그나마 민주주의의 학습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가는 활동이기도 하다. 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변하는 대표기구의 역할을 갖게 된다.

학교의 주인으로!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은 94년 창립하여 올해 10주년을 맞게 되었다.

내일은 참교육세대와 함께 만들어진 단체이다.

참교육 세대의 활동을 돌아보자.

80년대 말 전교조 태동기 학내민주화를 위한 활동으로 교사들이 해직됨으로써 눈을 뜨게 된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 사회 현실 속에서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활동을 하였

다. 동아리활동과 직선제 학생회의 쟁취 등 학생자치활동의 영역이 넓어진 것은 하나의 커다란 승리였다.

학생들의 요구는 여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교육 3주체)과 연대함으로써 참교육(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였다. [교육을 받을 의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함께 존재한다. (친일파의 글로 도배된 국어책을 공부하고 싶은가?)]

참교육세대의 경험은 청소년학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던져준다.

일제하 광주학생항일운동, 4.19혁명의 과정에서 역사의 무대에 당당하게 나섰던 주인공처럼 참교육세대의 경험은 학생이 학교와 사회에서 당당히 섰던 명확한 주체임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은 '아직 어리다거나 뭔가 잘 몰라 의식이 낮다'라는 것은 잘못된 편견임이 밝혀졌다.

문제는 청소년을 어리게 취급하고 무시함으로써 주체적 성장을 저해하는 학교와 사회의 잘못된 풍토에 있다.

내일청소년생활문화마당은 참교육세대의 경험으로부터 청소년의 사회, 역사적 지위를 올바르게 세워내는 것을 중심적 활동으로 창립하게 되었다.

청소년은 학교의 주인, 통일시대의 주역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처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내는 일은 청소년 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는 학교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참정권의 확보(18세, 17세 선거권)이다.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조직력과 힘을 갖추는 것이 청소년 운동의 주체적 과제이다.

정책참여자, 감시자로서의 청소년단체의 역할 높아져야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 및 시설, 단체의 지원시스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청소년단체에 걸쳐되어있는 것들을 살펴보자.

우선 대부분의 청소년 단체, 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과 행사 등이 일회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유희에 지나지 않거나 하나의 이벤트화 된 상품으로 기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시설, 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주체적 역량강화(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이루고 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한다.

또 하나 대부분의 청소년 단체가 정책참여자, 감시자로서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청소년단체의 행사 예산운영 등이 대부분 자치단체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면서 자치단체와 협조자로서의 교육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발전한 정책감시와 정책생산의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고 보수화 되어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주체적 역량강화를 중심적 활동으로 삼고 있는 단체들 또한 시민운동의 기능을 갖춰나가 청소년정책감시, 정책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청소년운동의 일주체로서 청소년단체의 역할이 주어진다 할 수 있다.

내일의 희망을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학교 안팎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게 보인다. 입시위중심의 학교교육의 뿌리엔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 지는 사회적 불평등이 전제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진보적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의 근간엔 국보법으로 유지되는 민족분단의 아픔과 부와 권력자의 뿌리에 친일, 친미로 이어지는 역사가 함께 존재한다. 청소년 문제에 얽혀있는 총체적인 문제에 함께 힘을 모우고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진보를 위한 연대활동의 중요성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희망이라 이야기하고 미래의 주역이라 이야기하지만 희망을 포함한 내일이 있기 위해선 최선의 오늘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학교의 주인으로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생청소년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이문석

오늘.... 학생 청소년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거의 학생이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대접을 받지도 못한다. 최근에 한 방송사의 캠페인을 통해 버스요금도 할인받고 영화도 할인받는 등 혜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아직도 차별 받고 있다. 왜일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청소년은 곧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아닌 청소년을 상상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만큼 교육에 관한 높은 국가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국가적 수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좋은 대학만 나오면 인생만사가 태평성대인 나라, 미국 유학 갔다 왔다고 하면 뭐든지 되는 나라, 하지만 그 반대이면 정말 살기 힘든 나라, 그런 나라가 모든 사람을 유학과 영문대에 줄서게 만들었고 결국 누구나 엄청난 돈을 들여 사교육에 매달리고 절대 학교 밖을 기웃거리지 않게 만들었다. 결국 모든 청소년이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한다. 그 한시기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청소년기를 학생에서 벗어나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학생과 청소년은 거의 동일시되는 존재이며,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청소년이 처한 현실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기가 인생올인기라 할 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성장해야 하는, 그리고 사회로부터 많은 생각과 가치를 흡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누구나 그렇듯이 살다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몇 번 있고 그럴 때 세상을 두루두루 보고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편협해지고 삭막해지지만 단지 잠시이기에 그런 시기를 사람들은 버텨 나간다. 하지만 그 시기가 청소년기라면 어떨까? 성장은 그 과정의 모든 기억에 상처를 남긴다. 삭막함은 인성을 형성하고 편협함은 가치관에 배어난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어른이 되어 이런 사회를 재생산한다.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학벌사회와 대학서열화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낳고 입시위주교육은 학생청소년에게 깊

은 상처를 남긴다. 0교시와 강제야자가 건강의 상처를 낫는다면 강제보충 등 강요와 강제는 자율성에 상처를 남긴다. 변별력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 된 교과서 중심의 교육은 스스로의 사유를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리고, 가치와 철학이 배제된 교육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능력 대신 효율성만을 신봉하게 만든다. 입시를 위해서 강요되는 용의복장에 대한 규제, 각종 사회문화활동에 대한 제약,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제약은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인 공동체활동의 경험을 규제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어떤 목적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구조 속에 자라고, 다시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 이런 구조를 퍼트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 암울한 재생산의 고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 작게는 학생청소년들이 문화, 자치, 인권활동등 공동체활동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고 크게는 입시위주 교육을 조장하는 대학서열화와 학벌 위주의 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거대한 모순이 얼기설기 얽혀있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성과로 나타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까?

한계상황으로부터

무엇보다 문제를 공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행동할 학생청소년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이 되는 것은 주체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인 상황에서 학교의 권위주의 체제와 입시위주 교육구조는 곧 학생청소년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는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며, 지역조직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야자보충 등으로 학생들의 인신은 구속되어 있고 권위주의적 학교체제와 입시위주의 경쟁 체제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학생들의 움직임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외 시간은 학생 개인의 시간이고 학생들은 지역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문화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학교구조는 입시준비라는 명목으로 활동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주도적으로 활동할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신이 구속됨으로 인해 지역에는 청소년운동의 요구가 없고, 지역인프라는 계속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중심축은 권위주의 학교체제에서 무한경쟁을 강조하는 입시위주 체제를 기반으로 입시공부만 하면 뭐든지 용서되고 입시공부에 방해되면 뭐든지 규제할 수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제약당하는 새로운 권위주의의 강화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가 학교의 권위적인 관료들 또는 관료를 지향하는 교사들에 의해 존재했다면, 현재는 학부모와 학교의 공조, 미래를 지당 잡힌 학생들의 침묵 속에 존재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치활동을 꾸려나가야 할 학생회

는 현재 학생회의 회의 개최권, 학생회의 조직 원리라 할 수 있는 학생회칙 제개정권, 학생회의 의제 설정권, 학생회 조직권(선거에 관한 제반 권한) 등이 모두 학교당국에 위임되어 있다.

학생들의 조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두발자유, 용의복장 규정 개정 운동 등 학생생활규정을 중심으로 인권투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웹에 기반한 한계와 실제 학교에 뿌리 내리지 못한 한계로 여론화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학교에 뿌리 내리기

그러므로 학생청소년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학교에 뿌리내리는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자치조직으로 학생회가 서면 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과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는 학생회로 결집되고 토론될 것이다. 문제는 학급회조차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교사-학생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7차교육과정 시행 이후 학급회조차 제대로 열릴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웬만한 의식을 가지지 않은 교사라면 학교구조에 휩쓸려갈 수 밖에 없다. 교사-학생의 일상적 연대가 활성화된다면 학급회부터 전교학생회로 이어지는 학생회의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립된 학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학생회 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지금 시기 중요한 운동이다. 청소년단체와 지역사회는 각 학교의 학생회가 활동할 수 있는 축적된 사업의 내용과 틀을 제공하고, 학생자치 네트워크, 문화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면서 학생회 지도와 학생자치활동, 학생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벌여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학생회 연대조직, 토론 및 문화운동조직을 구축하고 연결해 학생들끼리, 학생과 교사 간, 학생과 단체 간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 부족하지만 전교조, 청소년단체 등이 학생회 지도교사 네트워크, 학생회 연합, 토론마당, 축제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활규정개정사업, 학생회칙 개정사업, 축제사업, 학생의 날 행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힘을 키워나가고 학생들의 참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구조를 만들자.

하지만 거대한 구조와 맞서기엔 각 학교와 지역의 실천은 늘 벽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구조를 만드는 것은 학생청소년운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까?

먼저 학생참여 교육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자치운동의 열악한 상황은 학생들 스스로 극복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그러하기에 구조적으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세세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학생회를 법적기구로 명시하자는 학생회 법제화운동의 생각이다. 하지만 학생회가 법적기구가 된다고 해서 다 잘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만약 법률로 학생회의 활동이 제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학생회 법제화는 반드시 학생들을 교육의 일주체로 인정하는 내용¹⁾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생활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은 학생들의 삶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만들자는 운동으로 자치활동과 문화교육이 교육내용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전수를 넘어서 참여와 활동이 곧 교육이 되는 학교를 만들면 학생자치활동은 교육과정으로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를 구속하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를 깨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은 그물망을 짤 때...

갈 길은 멀다. 하지만 사례는 모이고 축적되고 있으며, 실천들을 모아 이제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할 차례다. 그리고 그 그물망이 학생인권의 개선과 구조의 개편을 위한 운동에 나설 때 청소년운동은 질적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학생청소년운동네트워크는 그 그물망을 짜기 위한 첫 걸음이다. 지금도 지역 곳곳에서 학생청소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있다. 18세 선거권 운동, 학생회 법제화 운동, 학내 종교자유 운동, 생활규정 개정 등 학생 인권 운동, 지역 축제·동아리 연합활동 등 문화운동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합종연횡을 거듭할 뿐 공

1) ▶ 학생회 법제화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장, 자치활동의 지원	
<p><학생의 권리> (기본권으로서의 학생 인권에 대한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출판 및 표현의 자유 - 학교운영 참가의 권리 - 학생관련 규정에 대한 의결의 권리 	<p><학생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선제 완성 - 학생대표의 출마조건 및 과정에 대한 자율권 보장 - 학생회에 학생회비의 예산 편성권, 집행권 보장 - 학생회 공간 보장 - 학교 운영 참가권(학교운영위원회) - 학교 규정(학생회·복장·징계 규정) 의결권 <p><동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정과 예산 확대 지원 - 공간 확보

▶ 전교조 학생회 법제화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동의 의제를 만들고 힘을 모아 집중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청소년을 둘러싼 의제는 간혹 제기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진척이 없기 일쑤다. 서로의 축적된 자료들도 소통되기 보다는 사장되고,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과 단체는 같은 경로를

현행 법규정	개정(안)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① 학교에는 학생들 전체로 구성되는 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학생회 이외에 학년별, 학급별 학생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구성되는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에 대해 성적, 연령,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정과 개정 발의 2.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3. 학생회 예·결산권 4. 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선출 6. 기타 학칙에 의해 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학생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⑥ 학생회에는 학생들에 의해 선출되는 학생회장장과 부학생회장장을 둔다. 다만, 학생회장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생위원이 된다. ⑦ 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⑧ 이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학생회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의 의결로 정한다. ⑨ 학생회 이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⑩ 학생회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2(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및 당해 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위원 및 학부모위원은 동수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복하고 있다.

물론 이런 우리의 한계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과 환경을 탓할 순 없다. 우리가 학생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갈 이 터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물망을 만들어 가면서 전망을 내놓고 실천해야 할 때다.